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제577호

지면안내 03 사회 보강, 코로나 시국에 던져진 난제 04 사진기획 Fo,Rest 05 사람 사람 마음 다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06 기획 어두운 현실 아래, 기초학문 ①

2022학년도 재선거 종료, 학생자치기구 23개 발족

지난 8일부터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3일간 진행됐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창의융합대학 등의 학생자치기구가 당선됐다. 다만 트랙 및 학과 단위 학생회의 경우 총 36개의 학생회가 이번 선거의 대상이 됐으나, 후보 미출마 등의 이유로 20개의 학생회만이 출범했다.

제36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는 '동화'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권수민(인문 3) 정희장 후보와 신하늘(사회과학 3) 부회장 후보가 찬성 313표(82.37%)를 득표해 당선됐다. 선거에는 재적인원 632명 중 380명(60.12%)이 투표에 참여했다. 주요 공약으로 동아리와 관련된 정보를 각종 SNS를 통해 전달하고, 분과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킬 계획을 밝혔다. 권 당선자는 "각 분과별 동아리에 관련 제휴 행사 및 공모전 소식을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각 분과마다 정기적인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해 분과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공약을 완벽히 이행하고 동아리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6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 학생회 선거 결과, '하루' 선본의 허민영(인문 4) 정학생회장 후보와 안윤석(인문 4)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575표(84.68%)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1,210명 중 679명(56.11%)이 투표했다. 이들은 주요 공약으로 인문예술대 학생에게 적합한 대외활동 및 비교과 활동을 추천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교생활을 장려하고, 모든 인문예술대 학우를 대상으로 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할 예정이다. 허 당선자는 "인문예술대 학생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공할 것이며,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인문예술대 내의 주요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후임 학생



▲6·7일 미래관 앞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 투표가 진행됐다.

회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우분들께 소중한 하루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인문예술대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1대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학생회 선거에는 'you:us' 선본의 송유경(인문 3) 정학생회장 후보와 오주림(인문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192표(93.20%)로 당선됐다. 재적인원 308명 중 206명(66.88%)이 투표했다. 주요 공약으로 ▲상상력인재학부 ▲문화문화콘텐츠학과 ▲AI응용학과의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지사항 및 프로그램 정보를 소속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 전공으로 입학한 창의대 새내기들을 위해 트랙 선배를 통한 전공 정보 제공도 이뤄질 방침이다. 송 당선자는

"전담부서 설치로 창의대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가 많은 트랙의 선배를 섭외해 지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 소감으로 "창의대 학생회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활기찬 1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트랙 및 학과 단위 학생회는 총 36개 중 20개의 학생회만이 결성됐다. 15개의 트랙 및 학과 학생회는 애초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지만, 이·민·다문화트랙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는 있었으나, 해당 트랙 학생 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이 좌절됐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오류, 총대의원회 단순 실수로 발생

지난 17일 진행됐던 '2022년도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인준된 총학생회(이하 총학) 예산과 24일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에 공지된 총학 예산 금액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총회에서 인준된 총학의 '만우절 행사'에 할당된 금액은 본래 642,760원이었으나, 막상 낙메의 게시글에서는 669,460원으로 상향 기재된 것이다. 이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측에서 금액을 잘못 입력한 채 낙메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잘못된 예산안은 고스란히 본부 측에 제출돼 1학기 총학 예산으로 그대로 반영됐다. 총학 측은 추가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학기 말에 반납할 방침이다.

김산(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예산을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수가 발생했다. 현재는 사태를 인지하고 5월경에 열리는 총회를 통해 잘못 기재된 예산을 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 측은 오지급된 예산을 학기 중 돌려주는 것은 절차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승빈(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예산을 수정할 시 다른 학생자치기구의 예산 인준도 다시 치러지는 등 학생회비 사용에 지장이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 지급된 예산은 1학기 업무가 끝나는 학기 말에 반환될 예정이라 밝혔다. 지 회장은 "예산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 측 역시 "이미 총학의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장 환불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며 "예산 변경 시 현시점으로부터 모든 학생자치기구가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학기가 끝난 후 최종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학 측에게 환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총학과 맥락을 같이 했다.

임혜은 기자 hyeeun0115@naver.com

평가대 오른 트랙제, 결과는 '미묘'

본교 트랙제는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생들이 트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트랙제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우리대학 재·휴학생 등 총 810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트랙제 취지 ▲트랙 구조 조정 등 일부 트랙의 운영상 어려움 ▲트랙제가 신입생 유치·취업률 제고 등 우리대학의 가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트랙제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 만족도 ▲트랙제 유지·개선 및 학과(부)제 제도 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이뤄졌다.

우선, '우리대학 트랙제에 대한 학우님

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7.9%)', '만족(32.7%)' 한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0.6%였다. 반면,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남긴 학생은 총 29.2%로, '매우 불만족(8%)', '불만족(21.2%)' 응답을 남겼다. 긍정적 답변의 주요 이유는 '트랙 선택 이전 숙려 기간 제공', '타교에 비해 폭넓게 보장되는 전공 선택권' 등이 꼽혔다.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의 주요 원인은 '소속감, 선후배 및 동료관계, 교수님과의 유대감 형성 등 비교과 대학생활'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 2면에 계속

정상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2022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무한한 가능성을만나다

가능성의 실현, 그 시작은 한성!

전공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를 넘어 높은 식견의 지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특수대학원	석사	사회계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모집없음)				경영관리
		사회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유역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과(모집없음)					
	기계시스템공학과	미약알콜학과(모집없음)					
석사	예·체능계	미디어디자인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모집없음)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민원행정컨설팅학과(모집없음)				
	한국어교육학과*	사회안전학과					
	사회학과	사회안전정책, 사회안전관리					
	영미문화학과(모집없음)	뷰티예술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뷰티산업융합학과						
무역학과	인보전략학과(모집없음)						
경영학과	인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행정학과	인보정책학과(모집없음)						
경제학과	국방시스템학과(모집없음)						
국제무역경제학과(모집없음)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컴퓨터공학과	창업&프랜차이즈컨설팅, 문화융합콘텐츠비즈니스컨설팅(모집없음), 컨버전스디자인컨설팅(모집없음)						
전자정보공학과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글로벌부동산전공*, 스마트부동산·프롤테크전공						
IT융합공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인문계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AI·SW융합교육전공*						
기계시스템공학과	* 신설 또는 명칭 변경 학과 및 전공임.						
Si융용학과*							
회화학과							
유류패션산업학과(모집없음)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 2022. 5. 2.(월) 10:00 ~ 5. 13.(금) 17:00
 •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고사 : 2022. 5. 28.(토) 10:00 학과(전공) 지원인원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22. 6. 9.(목)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 신설 또는 명칭 변경 학과 및 전공임.

10명 중 4명 만족, 소속감·취업률 등은 불만

설문조사에서 트랙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학생은 40.6%로 비교적 많았다. 타교의 복수·부전공 제도보다 전공 선택권이 더 많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공 선택 기회의 확대는 트랙제의 주요한 취지인데, 이에 대해 많은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우리대학의 트랙제가 기존 학과(부)제의 복수전공·부전공 제도보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넓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5.6%)', '그렇다(43.8%)'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9.4%가 본교가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랙제에서 신입생들은 우선 단과대학 단위로 입학하고, 2학년 진급 시 트랙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1학년을 숙려기간으로 정한 것이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공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교생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기람(인문 1) 학생은 "정해진 진로가 없다 보니 입시 당시에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본교의 트랙제를 알게 됐고 현재는 만족도 높은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입학 이전 우리대학을 지원할 때, 트랙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혹은 우리대학의 트랙제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25.4%)", "매우 그렇다(10.1%)고 응답하기도 했다.

다만 '아니다(24.7%)', '매우 아니다(12.6%)' 답변도 잇따를 수를 차지해 트랙제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교 입학처에 게재된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트랙의 종류와 2학년 진급 시 트랙을 선택한다는 간단한 설명만 제시돼 있다. 정희경(ICT 1) 학생은 "모집요강에서 트랙제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숙려기간인 1학년 동안 등록금이 단과대학별로 다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1학년은 소속 단과대학에 구애받지 않고 트랙기초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등록금은 단과대학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김현학(컴공 3) 학생은 "소속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수업 기준으로 책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우리대학 1학년은 단과대학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냐"고 말했다.

트랙제가 전공을 미리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 전공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대학 트랙제가 배우고 싶은 전공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32.1%)', '매우 그렇다(11%)'로 전체 응답자의 43.1%가 트랙제를 통해 배우고 싶은 전공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송은(동양학 1)

학생은 "자신만의 전공을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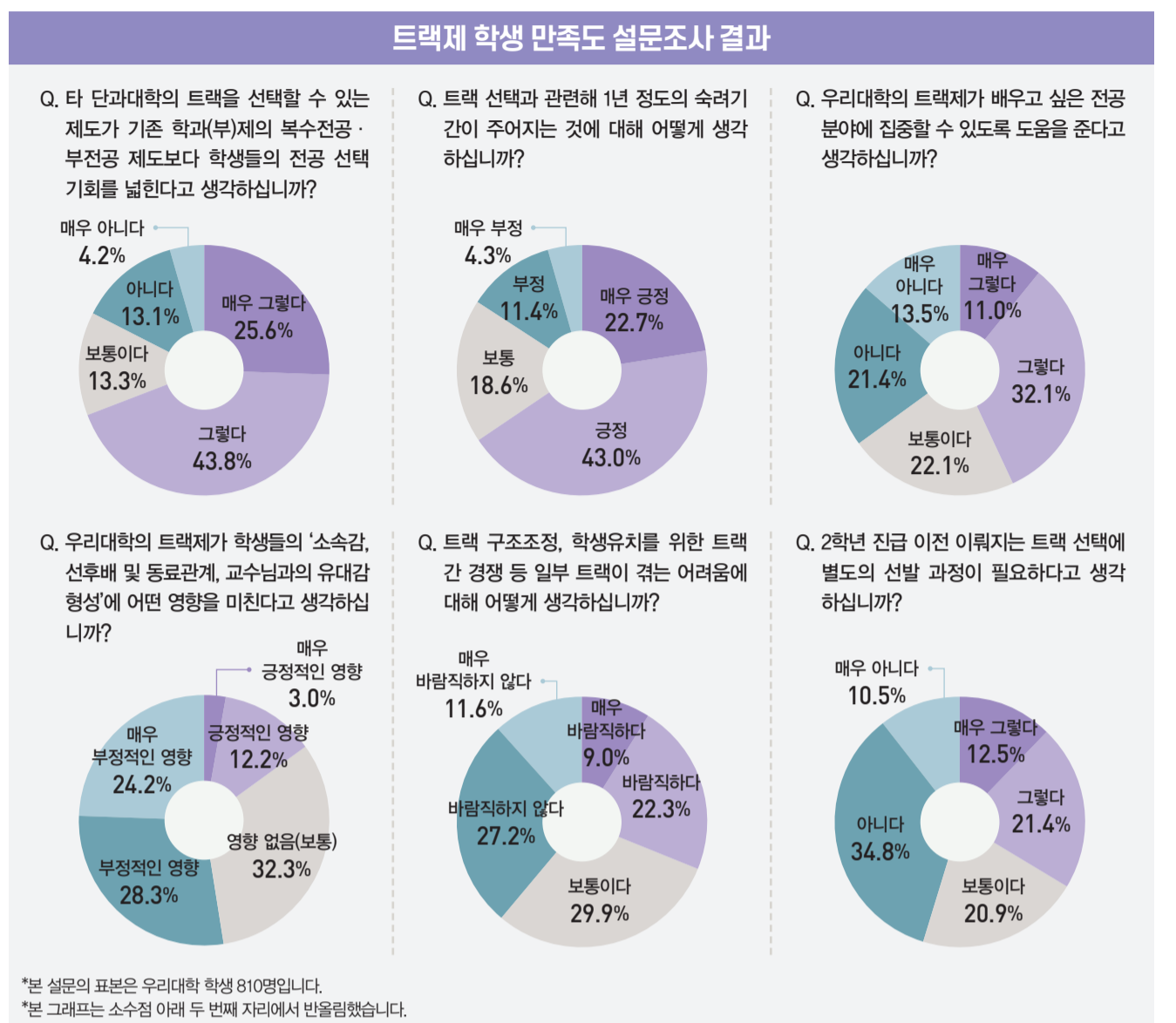
그러나 같은 질문에 '아니다(21.4%)', '매우 아니다(13.5%)'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전체 응답자의 34.9%를 차지했다. 특히 트랙제가 타교의 학과(부)제와 비교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우려가 상당했다. 1·2트랙이 서로 연계된 트랙이 아닌 경우 전공 전문성을 함양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하나의 학과를 여러 개의 트랙으로 나누다 보니 타교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성호(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는 "트랙당 이수하는 학점 수가 적어 타교 기준으로 2년 정도만 전공을 학습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트랙제의 취지인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 보장을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는 전공 관련 트랙을 1트랙으로, 흥미가 있는 공학 관련 트랙을 2트랙으로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자공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전자트랙과 정보시스템트랙을 모두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타교에 비해 전공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워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안연경(사회과학 4) 학생은 "대외활동 지원서에 '기업경영트랙, 회계·재무경영트랙'이라고 적었더니 면접관이 '경영학과임에도 회계는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냐'며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당황한 기억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대학의 트랙제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다(19.4%)', '매우 아니다(11.1%)'로 기록돼 트랙제가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0.5%였다. '그렇다(24.3%)', '매우 그렇다(7.5%)'로 트랙제가 취업률을 제고시킨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31.8%였다. 다만, 재학생일수록 트랙제와 취업 간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적 의견을 남긴 학생 중 28.5%는 15~19학년, 71.5%는 20~22학년으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취업 준비 경험이 비교적 많은 학년의 학생들이 부정적 의견을 더 많이 남긴 것으로 사료된다. 홍우형(사회과학부) 교수는 "외부에서 해당 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한 학과를 세분화시킨 트랙제 하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랙제가 비학술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우리대학의 트랙제가 학생들의 비교과 대학생활(소속감/선배 및 동료관계/교수님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28.3%)', '매우 부정적인 영향(24.2%)'으로, 전체의 52.5%



학생들이 트랙제가 비교과 대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교수는 "선배 간의 관계 형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학에서 형성한 인맥 또한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트랙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학생의 중도 탈락에 대해서는 '전공 전문성 함양의 어려움', '비교과 대학생활에 대한 악영향'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대학의 트랙제가 재학생의 자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30.6%)', '매우 아니다(16%)' 응답을 남겼다. 김현학(컴공 3) 학생은 "동기들이 대부분 전공에 대해 부족함을 많이 느껴 휴학을 한다. 휴학하는 동안 스스로 전공 지식에 대해 보충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교수는 이를 "아무래도 소속감이 결여돼 있고 학과 내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이 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기 트랙 소속 학생들은 수업의 양적·질적 수준이 모두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수에 비해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수강신청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학우도 "학년별로 듣기로 권장되는 전공

과목이 있는데 수강신청의 어려움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강인원 증가가 수업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것 같다. 수강인원이 적은 수업이 많은 수업에 비해 교수님께서 학생 개개인에게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주신다"고 덧붙였다.

소수 인원이 소속된 트랙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인원수 미달로 인한 트랙 구조조정, 학생유치를 위한 트랙 간 경쟁 등과 같이 트랙제가 일부 단과대학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바람직하지 않다(27.2%)',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11.6%)'고 답했다. 박주연(ICT 4) 학생은 "ICT디자인학부에서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이 없어지고 UX/UI디자인트랙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트랙 소속 학생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11월 트랙 구조조정을 통해 신설된 문학문화콘텐츠학과는 현재 공동된 전공에 트랙제와 학과(부)제가 공존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서영(인문 3) 문학문화콘텐츠트랙 학생회장은 "같은 문학문화콘텐츠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기존 트랙 학생들과 학과 신입생들이 서로 다른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고, 서로 교류할 일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전공 학부를 두는 여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공별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한 물어왔다. '우리대학의 트랙제는 성적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진급 이전 이뤄지는 트랙 선택에 별도의 선발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34.8%)', '매우 아니다(10.5%)' 등 전체 학생의 45.3%가 선발 과정 도입에 반대했다. 오정은(예술학부) 교수는 "트랙제의 취지는 성적에 따라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전공을 배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 과정 신설에 비동의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트랙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24.4%)'보다는 '개선(44.9%)'하거나 '기존 학과(부)제 재도입(30.6%)'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본부는 교수협의회 주도로 시행된 지난 '트랙제 설문조사'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트랙제 관련 사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교내 구성원 설문조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신입생 카피킬러 로그인 오류 일어나

본교 글쓰기센터 내 카피킬러캡스(이하 카피킬러)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로그인을 시도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잘못됐다'는 문구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 대학의 통합로그인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신입생들의 학적 정보가 카피킬러에 연동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피킬러는 이후 4월 12일에 정상화됐다.

신입생이 필수로 수강하는 교양 과목인 사고와 표현 일부 분반의 과제 중, 제출된 카피킬러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빚었다.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과제 제출을 위해 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개인

적으로 사용해 불편함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여문수(IT 1) 학생은 "제휴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해 과제 제출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늦은 공지와 조치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준영(IT 1) 학생은 "e-class 내 Q&A에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불편했으며, 공지하기 이전에 이미 과제를 마쳤음에도 표절 검사를 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고와 표현 과정은 이에 대해 분반을 담당하는 교수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달랐다고 전했다. 나은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센터장은 "사고와 표현

과정에서 과제 제출 시 표절 검사는 필수가 아닌 담당 교수의 재량이기에 공지 날짜나 조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3월 중순경 해당 문제를 파악, 문제 해결을 시작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임동욱(IT 1) 학생은 "22학년 신입생 학생들이 대부분 카피킬러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해결이 늦었기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현(정보화팀) 팀원은 "대학원 교학팀, 정보화팀, 사고와 표현 과정 등의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강승원 기자 ksw905@hansung.ac.kr

2022 상상부기 가요제 개최

'2022 상상부기 가요제'가 오는 5월 4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본 가요제는 한성대학교 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중계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재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된다. 또, e-class에 게시된 가요제 후보 영상 총 36편 중 10편 이상을 수표할 시 비교과 포인트 5pt가 제공되며, 이후 10편마다 5pt씩 추가로 수령 가능하다. 가요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선 순위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시상은 가요 부문 ▲대상(1명) 70만 원 ▲최우수상(1명) 40만 원 ▲우수상(1명) 30만 원, 특별상 부문 ▲

대상(1명) 20만 원 ▲최우수상(1명) 10만 원 순으로 이뤄진다.

가요제 무대에는 예선 투표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장희선(IT융합 4), 한정민(사회과학 4), 이건주(IT 1), 정성우(기계 2), 이채영(컴공 2), 이민정(인문 2) 등의 총 6명 학우가 오를 예정이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는 대상에 백기선(인문 2) 학우가, 최우수상에 정상효(기계 3) 학우가 선정됐다. 단, 특별상 수상자는 본선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

지승민(IT응용 4) 총학생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가요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며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xzzero@hansung.ac.kr

보강, 코로나 시국에 던져진 난제

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불거져 불가피한 결석에도 대안 부족 단순 보강자료 제공 역시 문제 학생 현실 반영한 매뉴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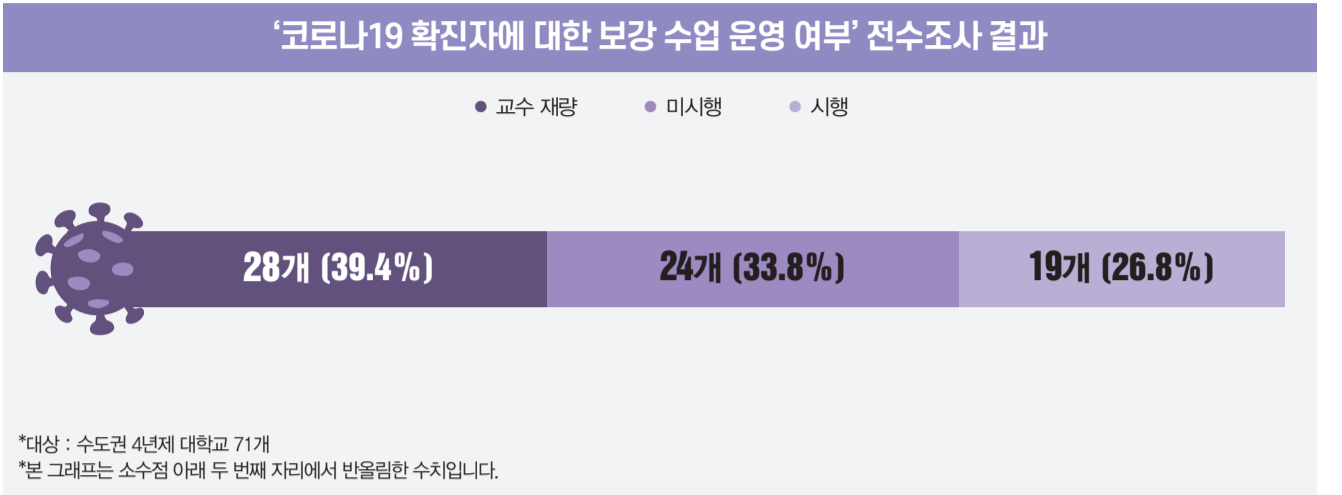
도움 '보(補)', 익힐 '강(講)'. 결강이나 휴강 따위로 발생한 수업 공백의 보충을 보강이라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고결석*은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 이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강과 관련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보강과 관련한 대학 사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1개**의 '보강 운영 여부'와 '보강 관련 학칙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보강

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는 24개, 교수 재량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는 28개다. 또한, 대면 수업을 녹화해 제공하는 등의 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19개였다. 서울 소재의 A 대학교 학사팀 관계자는 "수업을 맡은 교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필수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지만,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춰 보강을 시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지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보강 수업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본 설문조사는 4월 6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2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결석에 따른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과반 이상이 보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한 경우 보강이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 322명 중 239명(74.2%)이 '예'라고 응답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결석한 경우 보강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26명 중 77명(61.1%)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교수들 역시 불가피한 결석으로 야기되



는 학생의 수업 공백은 메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철(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는 "1~2주만 결석해도 강의 진도 등 수업의 전반적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수업이 여러 주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은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일일이 맞춰 보강을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 소재의 B 대학에서는 "일부 학생을 위해 사후에 보강을 운영하는 것은 시간과 부담이 크다 보니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C 대학에서는 "당일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부 대학에서 보강 대신 시행하는 수업자료 제공이 수업 결손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자료만으로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교수님께서 PPT를 가리키면서 수업하시는데, PPT만 봐서는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연성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현재 졸업반이라 실습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보강자료는 충분했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강의 질적 문제 역시 추가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만큼의 현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수업내용을 질의할 때 불편하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단국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실시간 수업에서는 질의응답이 쉽게 이뤄졌는데 보강에서는 쉽게 질문을 할 수 없어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보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교수의 전언이다. 김희용(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때 사용되는 수업자료는 공적인 자료라고 생각한다. 수업자료의 공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직접 보강을 요청해야 하는 일부 대학의 시스템도 지적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은 보강을 듣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연락'이라고 답한 49명의 학생 중 37명(75.5%)이 교수에게 보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은 교수에게 결석에 대한 보강을 직접 요청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한경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수님께서 따로 강의를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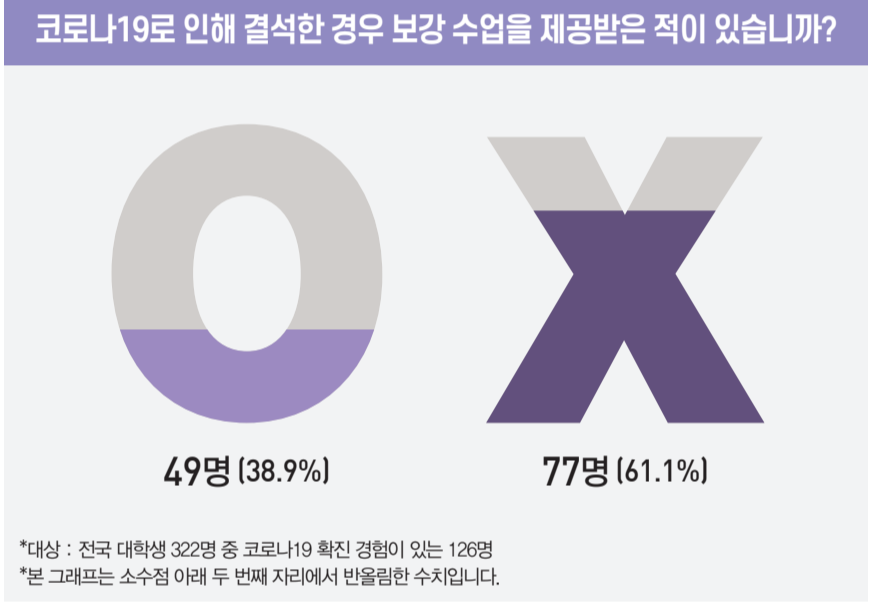
주시지 않는 이상 보강을 들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교수님께 문의하기 어려웠다는 학생은 다음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과제를 놓친다"고 전했다.

한편, 전수조사에 따르면 71개 대학 중 보강과 관련한 학칙이 존재하는 대학은 전무했다. 제도적으로 수업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진정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대학은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강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고결석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결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수도권 4년제 대학교 71개 :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분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한기자와 함께 하는 시사한잔

새로운 전쟁 양상 드러낸 露·烏 사태

지난 두 달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비보가 있다. 경제 제재, 민간인 학살, 난민 발생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소식이다. 이 전쟁은 단순히 양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이라 불리는 세계열강의 파워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비서방 진영과의 대립이 격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의 무기다. 서방세계가 '돈'으로 러시아를 질식사시키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무력화하고, 군사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서방세계는 즉시 우크라이나 지지에 나섰다.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해왔다. 주요 서구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삼고 있는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서방세계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구소련'이라는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NATO 가입을 두고 벌어진 갈등만을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번 전쟁은 여러 복합적 원인이 얽히고설켜 발생했다는 말이다. 박종관(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NATO 확장,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해 이번 전쟁이 발발했다"고 평가했다.

갈등 국면부터 엄포를 놓던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하자 작정한 듯이 최고 수위의 경제 제재를 쏟아냈다. 이들은 '에너지 대국' 러시아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러시아를 제외해 루블화의 위상을 땅으로 떨어트렸다.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와 첨단 기술 수출 금지는 이에 비하면 낮은 수위의 규제일 정도다.

해당 제재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에너지 업체다. 4월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해상 원유의 선적 물량은 2190만 배럴로 확인됐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인 2일부터 8일의 평균량과 비교하면 25%가 감소한 양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다음 달부터 하루 약 300만 배럴이 줄어들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의 예산 중 45%가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관련 제재가 러시아를 지금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에 한몫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배제는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인 러시아를 향한 노골적 제지다.

지난 3월 13일부터 러시아의 국책은행인 VTB 등 은행 7곳과 그 자회사들이 세계 금융망에서 퇴출당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는 세계 200여 개국의 1만 1천개 은행이 연결된 세계 단위의 통신망이다. 결과적으로, 4월 초 러시아는 전체 외환 보유고 60% 가량인 3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에 더해 루블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한 시기도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국가 부도에 상응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다다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 당국이 지난 3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4.5%를 기록했다. 실제 문제도 심각하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외국 기업 철수와 영업 중단 등으로 모스크바에서만 약 20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5% 감소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매년 1천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서방세계는 왜 그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까. 무력 제재를 피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계대전으로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는 "만약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무력으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다면 핵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법률속의LAW

일깨워야 하는 경각심, '저작권'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영화리뷰', '결말포함' 등의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영상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 저작권자인 영화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이다. 이렇게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빙자한 동영상이 범람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영상 삭제 정도에 그쳐 저작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출처만 남기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마저 보이는 사람도 왕왕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출처는 자신의 저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을 구분해주는 용도일 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영화처럼 저작권자가 명확한 저작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친처럼 저작권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두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어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유튜브들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영화의 일부 장면을 발췌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꾸미기도 한다. 이 경우도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수준의 영상으로 편향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열린 데는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지만, 저작권자들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성영(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있는 사적인 권리를 고려하면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를 처벌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Fo,Rest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성북천 분수광장'이 보인다. 그리고 분수광장은 북악산에서 시작해 청계천으로 향하는 물줄기인 '성북천'의 시작이다.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와 꽃들, 맑디맑은 시냇물은 지친 일상 속 소소한 힐링을 가져다준다. 제법 따듯해진 날씨에 성북천을 찾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성대학교에서 도보 10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이미 성북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성북천은 4호선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나쳤을 것이다. 바쁜 현대사회 속 '쉼'의 공간인 성북천에서 '숨'을 고르는 것은 어떨까. 무심코 놓쳤을지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 즉,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잠깐의 여유가 또 다른 활력을 불어 넣을지도 모른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 1 성북천 다리를 지나는 스쿨버스
- 2 강아지와 조깅 중인 학생
- 3 돌다리를 건너다 오리를 구경하는 아이와 할머니
- 4 길을 걷다가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 5 그늘 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성들
- 6 성북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성북동 주민
- 7 철봉 운동을 하는 한 남성



몸과 마음 다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눈으로 듣는 언어

수어(手語)란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의 위치와 움직임, 손바닥의 방향을 비롯해 표정, 몸의 움직임 같은 비수지(非手指) 기호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용어임을 인정받았다. 과거에는 대화의 의미를 가진 '수화(手話)'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한국어와 동격의 언어임을 피력하기 위해 '수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수어'는 독립된 언어이기 때문에, 마치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통역사처럼 수어를 통역해주는 '수어통역사'도 있다. 수어통역사라고 한다면 언뜻 그저 한국어를 수어의 몸짓으로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오해다. 수어의 어순은 한국어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어 어순대로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수지 한국어'의 존재는 수어통역사들의 오랜 고충이다.

김동호(41) 수어통역사는 "수지한국어는

한국어의 문법에 맞춰서 구사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수어는 공간, 동시적 표현, 역동적 표현, 역할 전환 등의 문법적 표현이기에 한국수어가 가진 문법을 살려서 통역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인과 함께 나아갈 방향

한국수어가 소수언어이자 위기언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권력자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다. 청인(聽人)이 다수인 세상에서 수어가 소수의 언어라는 점은

얼핏 당연하게 들린다. 그렇다 보니 잘못된 노출에 취약하다. 실제로 한국수어가 한국어로 오역돼 수지한국어로 소개되는 콘텐츠가 존재한다. 해당 콘텐츠들이 범람하다 보니 농인들조차 이를 실제 한국수어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왜곡된 정보들은 한국수어만이 가지는 고유 특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소수언어'와 '위기언어'를 통역하는 수어통역사들은 한국어 사용자들의 이런 안이한 인식을 꼬집는다. 청각장애인은 '불편한 한국어 사용자'가 아니라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는 것이다.

김유미(53) 수어통역사는 "농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는 수어통역은 그의 의의만큼이나 더욱 중대하게 다룰 분야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로부터 농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통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농인의 정체성을 지원하고 내적 성장을 도우며 농인의 문화와 한국수어를 보전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김동호 수어통역사 약력

- 2003년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 KBS 뉴스9 수어통역사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수어통역사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의 통역을 하고자 해요”

뉴스 우측 하단의 사람의 모습에 집중해본 적 있는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뉴스 하단에는 작게나마 다양한 표정과 유려한 손짓으로 소통하는 통역사가 존재한다. KBS 뉴스9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聾人)과 이야기하는 김동호(41) 수어통역사를 만났다.

돌고 돌아 다시 수어

김 통역사는 중학교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수어를 처음 접했다. 당시 그는 수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농인 목사의 수어를 보고 농인의 답답함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교회에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보였던 농인 목사님의 표정과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에서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한 번에 딱 의미가 느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어 자체를 배우는 과정은 그에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통역사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과정은 힘들었다.

“통역의 단계에 접어드니까 단순히 수

어의 단어를 배우는 것과 달리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인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건 좋았지만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도 처음부터 수어통역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시절에는 오히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전념하고자 잠시 수어를 멀리한 적도 있었다. 수어통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문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약 2년 전부터 수어통역사라는 직업을 즐겁게 해보기로 결심했다.

“수어의 세계가 제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통역 일이 비록 힘들더라도 기쁘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더 나은 통역으로의 전진

그는 현재 KBS 뉴스9의 수어통역사로 활동 중이다. 청인들에 비해 비교적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KBS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을 대비한 야간 대기기를 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현재 공공 수어통역사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이하 코로나19) 브리핑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브리핑에 처음부터 농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보를 농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당연한 일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통역사의 배치와 통역사 화면 출연 등이 요청을 통해 이뤄진 결과예요.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상 알고 보면 실현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헤아려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김 통역사가 통역을 맡고 있는 KBS 뉴스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은 우측 하단에 위치한 작은 회색 직사각형이 전부다. 수어통역 화면을 포함하는 방송은 늘어났지만 농인의 입장에서 이 작은 화면을 보고 수어를 들으려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수어를 읽어야 하는 시청자로서는 화면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우리로 보자면 볼륨을 1에서 3 정도로 작게 해놓고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스마트 수어 방송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수어를 좀 더 크게 키워서 볼 수 있지만, 농인도 한 화면에서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여건

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또한, 수어통역의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통역의 질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 명의 통역사가 장시간 동안 통역하거나 토론회 같은 방송에서 한 통역사가 여러 발언을 동시에 통역하는 등의 상황이 통역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 소리가 겹쳐서 나오고 갑자기 화면도 바뀌는 상황에서 통역이 잘 전달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한 통역사가 방송에서 1~2시간 이상 통역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수어통역이 고도의 에너지와 함께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통역을 하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는 수어통역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자 한다. 그가 지향하는 수어통역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저도 시각적인 효과를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도달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도해요. 제가 좋은 통역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고, 또 계속 노력함으로써 따라오는 영향을 느끼고 있어요.”

“효용이 다할 때까지 수어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한 분야와 관련된 3개 이상의 직업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 믿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농인 사회 속에 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의 수어통역사로, 한국농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수어 관련 도서를 집필하는 작가로 농인 사회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며 농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김유미 수어통역사(53)를 만났다.

운명처럼 만난 수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청인이다.

“농인은 문화·언어적 관점의 용어이고, 청각장애인은 의료·병리적 관점의 용어예요. 청각장애인이라는 범주 안에는 중도실청인, 노인성청인 등도 들어 있죠. 그러나 이들 모두가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 수어라는 시각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을 지칭해요.”

김 통역사는 대학 신입생 시절 교내에서 수화교실 포스터를 보고 수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수화교실에서 수화의

기초를 배웠고 그해 여름에는 특수학교 학생들과 캠프를 가기도 했다.

“신입생 시절 대학 교정에서 수화교실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 후로 운명처럼 수어를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어를 놓지 않고 있죠. ‘당위성’, ‘운명’ 같은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는 수어통역을 통해 농인과 삶을 함께하고자 했다. 그래서 1997년과 2006년, 각각 수어통역사 민간자격증과 국가공인 시험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가 수어를 배우던 당시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어를 이는 청인들이 농인의 고충을 통역으로 함께 해결해나갔다는 인식만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농인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방향만 있었을 뿐 그 모양은 무엇이어도 상관없었죠. 다만 수어통역사 제도가 시작되면서 자격증이 없어 저를 필요로 하는 농인에게 통역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농인문화 속에서 찾은 삶

그가 하는 주된 활동은 방송통역이다. MBC 뉴스데스크의 수어통역 화면에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면 속에서도 그는 농인들에게 뉴스를 한국수어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뉴스통역은 배경지식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알고 있는 것에 더해 속도와 밀도까지 엄청나게 높은 영역이에요. 시간과 싸우면서 정보를 사수하고 온전한 한국수어로 전달하기 위해 정신줄을 꼭 잡아야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극한의 에너지를 쓰는 분야가 뉴스통역이에요.”

김 통역사는 방송통역 외에도 농인들의 생활을 돕고자 2011년 ‘한국농문화연구원’이라는 작은 문화거점을 개원했다. 한국농문화연구원은 농인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청각장애로 태어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연구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통해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인정을 얻는 장면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

“수어를 배우며 문화적으로 농인이 되어가는 이월부터, 농문화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농인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이들이 모여 강의를 통해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줘요.”

농문화연구원에서는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농인들을 위해 ▲한국수어학당 ▲농인독서회 ▲특강 등이 이뤄진다. 한

국수어학당에서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지만 수어를 배우지 못했거나 수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친다.

“한국수어가 제1언어인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익숙하지만 능숙하지 않은 외국어와 같아요. 그래서 청인보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불리한 측면이 있죠. 독서모임은 이러한 농인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수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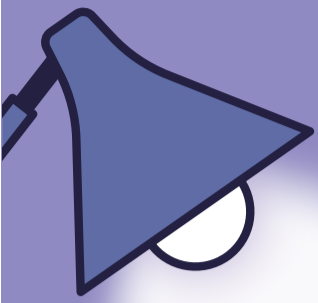
그는 수어와 관련된 책 집필은 물론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국어원의 연구 사업 및 교재 집필에도 참여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저서인 『영혼에 닿은 언어』는 낯선 주제인 농인, 한국수어, 농인사회 등에 대해 경험과 예를 제시하며 설명해준다.

“모든 언어는 그 공동체의 영혼, 곧 정수(精髓)의 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수어는 시각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내면의 정보가 비교적 정직하게 드러나는 언어예요. 그런 면에서 수어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귀한 영역에 닿아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정리된 생각이 있어서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니고 제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메시지를 따라 지었어요.”



김유미 수어통역사 약력

- 1997년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 MBC 뉴스데스크 수어통역사
- 한국농문화연구원 원장
- 영화 ‘도가니’ 수어대사 연출



어두운 현실 아래, 기초학문 ①

‘상경계열 우대’, ‘이공계열 우대’. 기업들이 내놓는 신입사원 채용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격요건 중 하나다. 하지만 그중에서 기초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우대해 채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초학문이란 응용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으로, 주로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일컫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별다른 충격을 안겨주지도 않는다. 이런 추세는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까지 예외가 아니다. <한성대신문>은 기초학문이 당연한 위기와 원인을 알아보고,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호에 걸쳐 기획 기사를 송고한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문사철’, ‘전학기’. 대학생들이 흔히 특정 학과들을 묶어서 일컫는 말이다. 문사철은 ‘문학’, ‘사학’, ‘철학’을 의미하고, 전학기는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의 준말이다. 문사철은 기초학문의 대표 주자인 반면, 전학기는 이른바 ‘취업강패’로 불리는 응용학문의 학과들이다. 기초학문은 응용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지만, 보통 취업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다.

기초학문 전공들은 학과통폐합 혹은 정원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2019년 <서울경제>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동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80개를 조사한 결과, 물리학·화학·수학·생물학 등 자연계 기초과학 학과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대학은 88개(48.9%)에 이르렀다. 박일우(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는 “전통적인 문사철 학과가 남아있는 대학이 한손에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문은 실제로 취업시장과 거리가 멀다. 2019년 4년제 대학 인문계 졸업자의 취업률은 55.6%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직업과 전공이 일치하는 경우는 30%대에 머물렀다. 사회·교육·공학 계열의 일치도가 50%대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운 기초학문 전공의 대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는 동떨어진 공학 관련 분야를 복수전공하거나, 학원에 다니며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이예원(25) 씨는 “기초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드물어 취업의 벽이 더욱 견고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류용재(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초학문이 응용학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부전공이나 다중전공 등의 형식으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복수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것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일면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낮은 취업률은 고스란히 학생의 비선호로 이어졌다. 대입부터 학과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학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작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응용학문인 컴퓨터과학부가 19.44, 기초학문인 물리학과가 8.43을 기록하며 큰 차이가 벌어졌다. 기초학문은 결국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호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즉 공공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연구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기초학문 연구는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역시 공장 성과가 드러나는 응용학문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목적이 ‘경제발전’인 연구의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이 23%인 반면, 우리나라는 49%로 단연 최고를 기록했다. 류 교수는 이를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기술 관련 연구나 응용과학은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비롯한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나 지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학문의 가치를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측정하는 행태는 정부의 대학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있다. 이 진단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중 하나로 ‘기준 미달’의 대학에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졸업생 취업률 등이 지표인 평가는 수치 지향적인 대학평가를 만들어냈다. 정부가 주도하는 평가 외에도 다양한 대학평가들이 존재하나, 모두 기초학문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 교수는 “대학의 역량,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함양하는 능력 등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대학평가는 수치로서 측정되지 않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다 보니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기란 어렵다. 심지어 인문학의 경우에는 학문도 구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류 교수는 “인문학의 본원적이거나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되거나 위축되고 있다. 현재는 인문학의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상실한 채 미디어와 문화산업, 경제적 가치와 성장 등 자본주의적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도구적 성격으로 다룬 무언가와 관계를 맺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문이 응용학문과 달리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인식도 대표적인 오해다. 실제로 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염기서열 분석과 PCR 관련 기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단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2배 확대했다. 하지만 이는 응급 처치로만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손동현(우송대학교 교양대학) 학장은 “정책적 지원에서조차 기초학문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진정 시간을 충분히 가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

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진지한 고민 없는 단순한 관련 예산 증액 정책은 오히려 대학이 자본을 중심으로 기업화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난립해 ‘학위 장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하(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소장은 “예산 증액이 연구 지원에만 쓰이지 않고 대학에서의 인력 운용이 확대되도록 쓰이게 해야 한다”며 “학문을 계속 연구할 후속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초학문의 약화는 대학 기능의 쇠약과 떼려야 뗄 수 없다 ”

기초학문의 퇴보는 대학원의 몰락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학원은 연구의 중심이라 불리는 기관이지만 점점 인식의 변두리로 쫓겨나는 추세를 보인다. 2020학년도 서울 시내 40개 일반대학원 중 신입생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일반대학원은 34곳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연구가 부실해지는 현상은 대학의 위태로움과 가까워지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대학이라는 공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 위협받다고 주장했다. 손 학장은 “학문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며 “응용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현위치까지 온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더 그 바탕이 되는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학문의 토대가 약화된다면 남는 것은 절망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 등의 사유로 기초학문 강의가 줄어들자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 수준은 갈수록 저하된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일반대학연구진흥금(General University Fund)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대학에서의 연구는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정부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과제를 수주해 받은 연구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대학 연구개발 지원금이 곧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순위순 과제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인다. 일반대학연구진흥금이란 정부가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즉 특정한 연구를 정하지 않은 채로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대학에 주는 일반교부금이다. 이 기금을 통해 대학은 연구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연구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실제로 일반대학연구진흥금은 연구개발 투자가 일찍이 이뤄진 선진국에서 기초연구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가 늘어난다면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지원도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대학생 1인당 공공육비는 1만 1290달러지만, 이는 1만 2535달러인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와 1만 4978달러인 중학생 1인당 교육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 대학 공공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의 66.2%로,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0.6% 수준으로 미흡하다. 손 학장은 “OECD 국가들은 초·중등 교육 지원금에 비해 대학생 지원금이 약 3배 가량 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금액이 가장 적는데, 교육을 위한 세금이 대학에 적게 가다 보니 시장 논리에 의해 기초학문 교육이 약화됐다”고 전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8년에 비해 4계단 상승했지만, 동기간 교육경쟁력은 25위에서 30위로 5계단 내려갔다. 특히나 대학 교육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를 차지하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기초학문을 토대로 한 교육 전반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기사에서는 한국의 기초학문이 위협에 빠진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호에 계속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2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3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4기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2년 3월 2일 ~ 5월 6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필기고사 : 5. 14.(토), 합격자 발표 : 6. 10.(금)
 - 면접평가 : 9. 13.(화) ~ 9. 30.(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0. 21.(금)
 - ※ 세부사항은 '22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원대학 학군단



· 삼 학 송 ·

트랙제, 진화할 수 있을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 본교에 '트랙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나 6년 차가 됐다. 19학번으로 입학한 학생이 4학년 과정을 밟고 있으니, 대부분의 학생은 트랙제가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학과(부)제로 입학했던 학생도 존재한다. 트랙제가 아직까지도 과도기를 걷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본교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재정지원 대학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교육부에서 컨설팅 이행과제를 받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지난 2016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해제를 얻어냈다. 당시에는 1년의 기한을 둔 조건부 해제였으나, 2017년 9월 본교는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행과제 역시 모두 완료했다. 그 결과 본교는 지난 2017년부터 트랙제를 전면 도입해 학사구조를 새롭게 구축했다. 일부 단과대학이 아닌 모든 학부와 세부 전공을 대상으로 트랙제를 도입한 것은 본교가 최초였다.

트랙제는 도입 첫해부터 크고 작은 잡음에 휩싸였다. 등록금이 상이한 학과(부)의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발생한 '학부 간 수업료 차이'를 시작으로 여러 문제가 대두됐다. 학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소속감 저하와 전공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뒤따랐다. 또한 다음해 각 학과의 행정사무실이 급하게 통합되면서 학생의 혼란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공 이수학점이 부족해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트랙제에서는 1학기에 개설된 전공과목이 2학기에 열리지 않아, 총 이수학점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불시침이 확실히 진화(鎮火)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트랙 구조조정 등 트랙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유로운 전공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트랙제의 장점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성대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트랙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트랙제가 취업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입생들은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의 약 2배를 기록한 반면, 기존 재학생들은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오히려 부정적 답변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을 트랙제와 동행한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 이면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트랙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랙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개선'을 선택한 학생은 44.9%였다. '기존 학과(부)제의 재도입'이 30.6%, '유지'가 24.4%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트랙제는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에 손해를 보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트랙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본교가 트랙제의 선두주자로서 시행착오를 겪음은 당연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본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될 것이다. 이제는 트랙제가 진화(進化)할 시간이다. 지난해 창의융합대학이 신설되면서 본교는 트랙제와 학과(부)제의 공존이 시작했다. 앞으로 5년의 세월이 더 흐른 후 한성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신혜림 편집국장



물음으로 나와야 할 진실

'4월16일약속국민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8주년을 추모하며 지난 4월 9일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로구 푸르메센터와 동대문성곽공원 광장에서 시작된 두 개의 노란기억·물결 행진은 각각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이어졌다. 행진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완수를 촉구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 당일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국가로부터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그날의 진실이 물음으로 오를길 바란다.

김지윤 기자

기자수첩 | 흘러나가는 정보를 막는 댐을 지을 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실제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 데이터 추적'이란 이름으로 네티즌의 행동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분석해 관련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 활용된다. 맞춤형 광고는 언뜻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기업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Apple 사가 발표한 「당신의 데이터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데이터브로커'들은 전 세계 7억 명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최대 5천 가지 성향을 담은 소비자 프로필을 생

산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던 사적인 부분도 데이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 역시 담겨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우리가 추구했던 기술 발전의 결과인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심지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는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페이스북 이용자 약 5억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 피해자 중 12만 명은 우리나라 이용자였다. 당시 페이스북은 유출된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정부의 현행 정책은 발걸음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 정책의 문제점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에 비해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를 잇는다. 따라서 데이터 추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규제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 데이터 정보 등의 '온라인상 행태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온라인상 행태정보도 '정보'로 보호해야 함을 명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신속한 제도 마련이 아닐까.

박희진 기자

■ 의화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인슈타인의 반전평화 호소

지난 주말 국제화상회의가 있었다. 회의에 참여했던 독일 베를린 지인들은 매일 1,000여명씩 베를린 중앙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연민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에 기인한 세계대전으로의 우려감을 토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에 따른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전쟁(이하 우크라전)이 발발했다. 푸틴의 구 소련의 점령 야욕만으로 우크라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초강력 경제 제재로 러시아 디폴트(default)가 임박했다는 뉴스들이 있으나, 러시아는 자신이 디폴트되면 유럽도 디폴트를 당하게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도미노적 국가별, 기업별 디폴트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세계 경제에 일층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중동국가들이나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제재에 참여한 서구의 많은 기업들조차 러시아와 에너지 등의 교류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IMF는 한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할 만큼, 우크라전은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중단하지

않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비판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 지식인의 한 사람인 노암 촘스키 MIT교수는 "세계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령 핵전쟁이 유예되더라도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초도화, 대량학살, 전시 성폭력, 약자에 대한 테러 등은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치명적 상처가 될 것이다.

문득 1932년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보냈던 편지가 떠올랐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다시 전원이 떠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집단 암시에 가장 굴복하기 쉬운 것이 인텔리겐차(즉 지식인)"라는 비판을 했다. 그는 프로이트에게 국제분쟁,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세계평화를 가능하게 만들 길을 모색하자고 호소했다.

이제 핵무장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류 절멸의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전쟁의 1차적 희생양이 될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크라전을 중단하고 반전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김귀옥(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 낙산에 올라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걷던 중에 나도 모를 매혹적인 향으로 뒤를 돌아본 적이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걸모습과 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향으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이 어떤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수나 방향제 같은 향수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색조 화장품의 사용에 제한이 생기게 됐고, 향수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고급 니치 향수의 소비가 늘고 있다. '니치 향수'는 '니치'와 '향수'의 합성어로, '틈새'를 의미하는

당신은 어떤 향을 갖고 있나요

이탈리아어 '니치'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대중적인 향이 아닌 틈새의 향을 나타내는 향수로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향수를 의미한다. 어디선가 접할 수 있는 향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향 혹은 고급 원료로 만들어진 독특한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니치 향수 브랜드인 바이레도, 딥디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매출이 1023% 이상 늘었다. 일반적인 향수에 비해 2~3배 이상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판매율이 꾸준히 늘어났다. 기존의 향수 브랜드들이 고급화 전략을 펼치며 따라 니치 향수 가격대도 30~50만 원대로 상향평준화되는 추세다. MZ 세대의 경우,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려는 플렉스(Flex) 문화와 명품 구매를 시작하는 작은 소비의 일환으로 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말과 글을 제외한 소리, 기호,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한 책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는 '후각 신분증'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향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좋고 싫음을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만의 향을 가지길 원하고, 향을 통해 자신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기 원하는 MZ세대가 니치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좋은 향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호감과 호기심, 더 나아가 행복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향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신이 하는 노력에 따라 자신의 향기는 끊임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가꾸고 서로 주고받는 넉넉한 마음을 먼저 가져 보기를 바란다.

이지원 (사회과학 3)

기자사령

- 퇴
- 부장기자 김기현(인문 2)
- 수습기자 우가영(인문 2)
- 윤자원(인문 1)
- 김현영(패션 1)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박선옥 편집국장 신혜림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 16 회

사진공모전



모집기간

4월 4일(월) ~ 4월 29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오프라인 제출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 직접 제출(10:00 ~ 18:00)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79호 (6월 7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1명)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佳作 1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유의사항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6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자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佳作만 시상합니다.